



땅에 미생물이 자라고 벌레와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걸 회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손바닥 만한 텃밭을 일구며 회복에 대한 생각에 희미한 빛이 비쳤다.

.....

안녕하세요.

택합이네 소식이 어느새 50이 되었네요.

50은 그저 숫자일 뿐이지만 기분에는 어느 마일스톤을 찍은 느낌도 납니다.

어쩌면 이제 막 베이스캠프를 찍고 다시 등반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일 지도 모르겠습니다.

적고 보니 전투적인 등반이란 단어보단 여정이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.

이 여정, 긴 호흡으로 함께 오손도손 가 보아요.

키국에서

윤재웅 드림